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1차 회의
- 2025. 7. 21.(월) 14:00,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

지금부터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이종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전원이 다 참석하시지는 못하셨지만 저희들이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80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중간에 이렇게 드리면서 받는 분들 말고 서 계신 분들 눈치를 보니까 한 50번쯤 됐을 때 이거 언제 끝나나 하고 너무 많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래도 저희가 광복 200주년이 아닌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시고 저희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쪽 이어져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마 이어져 갈 것입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입니다. 참 뜻깊습니다. 이제 20년이면 100주년이 됩니다. 그야말로 도전과 응전의 현대사였습니다. 원조를 받다가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고 식민지였다가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K-컬처, 어디든 K를 붙이면 그것이 세계인에게 기대를 주는 역동적인 문화 강국의 힘이자 세계적인 보편 가치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광복 80주년 역사 굵이굵이의 상징과 관련된 분들을 위원으로 모셨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됐을까 처음에는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이 자리에는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기쁨도 슬픔도 또 자랑도 아픔도 보수도 진보도 또 과거도 미래도 그 모든 것을 하나의 몸에 담아내는 그러한 상징이 되는 분들을 다 모셨습니다. 직접적으로 역할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직접적으로 역할을 하시면서 또 그 가족들이 역사에 아로새겨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역사와 이념의 굵이굵이가 계신 분들을 모셨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한꺼번에 이 자리에 모시는 가장 대표성이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는

고민의 산물이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로서는 형식적으로는 공동위원장으로 이렇게 모셨지만 제가 살면서 또 정치에서 또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귀하고 감사하게 늘 이렇게 모시는 이종찬 광복회장님과 독립운동가 가족들이 또 이 자리에 함께하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바로 이곳 백범기념관에서 바로 작년에 저희들이 동일한 시기에는 광복회와 또 우리 이종찬 회장님이 응당 받아야 할 존경과 이런 것을 훼손당하는 그런 아픈 과정이 있었고 또 그런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본 바가 있는 사람으로서 특별한 감회를 가지고 이렇게 이종찬 회장님을 모시게 돼서 감사드리고 이종찬 회장님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광복회가 상징하고 있는 우리의 역사 그것이 다시 제자리로 복원되어 가는 시작의 자리를 저희들이 함께했다는 점에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3년, 민주주의와 경제는 후퇴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은 최악의 정점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미화, 독립운동가 폄훼로 역사도 흔들렸고 국민통합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위대한 국민이 빛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진정한 통합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그 기초는 올바른 역사 올바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첫 회의를 여는 이유이고 사명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진정한 통합의 장,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는 문화적 기념비가 되는 광복 80주년 행사들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 이제 시작하게 되는 위원회는 그러한 행사 하나하나에 숨결을 불어넣고 또 전체의 맥을 일관해서 이어가는 그러한 결론을 온 국민을 대신해서 내려주시는 그러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한분 한분의 소중한 말씀과 의견을 받들어서, 기념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